

III. 해외마케팅.투자정보 하이라이트

■ 남아공, 월드컵 관련 정부입찰시장 진출방안

- 2010년 남아공의 월드컵 개최확정이 결정되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정부입찰계획은 없으며 추측만 난무한 상황임. 정부 등 관련 기관을 접촉한 결과, 월드컵 관련 입찰이 내년부터 본격화 될 것이라면서 특히 2002년 월드컵 개최 경험에 있는 한국의 KNOW-HOW 전수 등 한국 참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아국업체들의 효과적인 남아공 월드컵 입찰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월드컵 입찰관련 내용 및 진출 유망한 분야를 분석하고 남아공 정부 입찰시장 특징 파악이 필요함.

□ 2010년 월드컵관련 입찰관련 주요 내용

- 현재 월드컵관련 남아공 입찰시장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2002년 월드컵 때 한국과 일본이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규모가 미화 150억불 정도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남아공의 월드컵 관련 입찰시장규모는 최소 미화 50억불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주요 입찰내용은 13개 경기장관련 사업, 즉 신축/개·보수/부대 인프라 구축 등에 최소 미화 10억불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개선 분야에 미화 40억불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일례로 요하네스버그를 포함하고 있는 GAUTENG주에서는 2010년 월드컵을 대비해 교통시스템 개선에 약 130억란드(약 미화 20억불)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하였음.
- 그리고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월드컵관련 남아공 정부의 입찰 방식은 공개입찰방식이며, 흑인기업들에게 가능한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발주할 것이라고 함. 예를 들어, 경기장 신축의 경우 엔지니어링 등 건설분야, 전기분야, 보안분야, 예매시스템 분야 등으로 분야별로 세분화 하여 발주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남아공 정부입찰 시장 특징

- 남아공은 흑인기업 육성정책으로 인해 정부나 공기업 입찰참가시 흑인기업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실제 흑인기업이 아니고서는 정부나 공기업 입찰시 낙찰되는 것이 불가능함.

[진출방안]

- 남아공 월드컵관련 정부입찰시장에 아국기업들이 진출방안을 요약하면 유망 진출분야를 발굴 분야별 유력 흑인기업과 연계하여 입찰시장에 참여하는 것임.

□ 진출 유망 분야

- 경기장관련 분야 중 건설분야는 남아공 건설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직접 참여가 어려워 보이거나 철강, 시멘트 등 건설자재 등 납품을 추진을 통한 간접 참여는 가능해 보임.
- 경기장관련 보안, 예매시스템 등 분야는 유망해 보이는데 한국의 발달한 IT기술과 KNOW-HOW을 전수해 준다면 이 분야의 직접참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경기장관련 분야에서 진출유망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 철강,시멘트 등 건설기자재
 - 경기장 조명시설
 - 대형 경기장 스크린
 - 출입통제 등 관련 보안 장비
 - 입장권 발매 SYSTEM 등 IT 분야
 - 대형 발전기 등
- 교통관련 분야를 보면 현재 남아공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시스템은 ITS(Th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인데 동 시스템은 높은 수준의 IT기술이 요구되는 분야가 많은데 특히 자동 티켓 발급, 자동 요금 징수시스템, 교통 통제 시스템 등 분야가 유망해 보임. 실제로 최근 무역관으로 철도관련 자동요금징수시스템에 대한 한국업체에 참가요청 문의가 있는 바 있음.

□ 유력 흑인기업 발굴

- 상기 남아공 정부입찰시장의 특징으로 인해 분야별 활동하는 입찰 전문 흑인기업들이 있는데, 이들 중 입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력 흑인기업을 발굴하여 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시장에 참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따라서 사전 조사를 통한 흑인기업 명단 입수를 하고 대면 상담 등을 통한 유력 흑인기업을 발굴하여 사전에 인맥을 형성하는 활동이 필요함. 다만 능력이 없는 흑인기업이 입찰참여에 대한 커미션만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함.
- 참고로 ITS관련 국제 포럼 및 전시회가 케이프타운에서 개최 될 예정인데 2010년 월드컵을 대비한 추진될 남아공 교통시스템 설명 및 참가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전시회에 한국업체들이 참가하여 필요 정보입수 및 홍보활동 등 전개가 요구됨.
 - 컨퍼런스명 : E-TRANSPORT - SMART TRANSPORT SOLUTIONS FOR NEW WORLD ECONOMIES
 - 기간 : 2005년 5월 10-13일
 - 장소 : 케이프타운 국제전시장

(문의처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허진학 kotrajnb@icon.co.za)